

# 옛 사당의 향로같이 정진하여 한 가닥 흰 비단이 되라

경내를 참배하는데 두 개의 고련(古聯)이 보인다. 경저전선지(慶諸傳禪地)와 초원설법지(楚園說法場)가 짝을 이루고 있다. 석상사의 정체성을 두 구절로 요약한 고련이다. 석상 경저(807~888)가 선을 전했고, 석상 초원(987~1040)이 법을 설한 도량이 라는 뜻이다.

석상 경저가 상화산(霜華山)으로 들어온 때는 30세(836년)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해에 스승 도오종지(道吾宗智, 769~835)가 임적하자 도오산에서 스승의 영골(靈骨)을 수습했고, 이후 석상사로 들어와 회창법당 때 유양의 도자기 촌에서 도공으로 4년 동안 피해 있다가 82세에 임적 때까지 주석하였던 것이다.

석상사 조성(性性) 주지스님은 출타 중이고, 대신 얼굴이 후더하게 큰 지객스님이 안내를 한다. 선당(禪堂) 앞에서 수불 스님이 지객스님에게 순례자 일행이 잠시 좌선할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허락한다. 선당은 석상사의 20여 명 되는 대중스님이 일과표에 따라 좌선하고 있는 모양이다. 밖에서 선당 안을 볼 수 없도록 창에 칠회한 커튼이 쳐져 있는데, 우리나라 선방처럼 밝지 않고 어두워침처럼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당 중심에는 특이하게 오불관(五佛冠)을 쓴 비로자나부처님이 보인다. 오불관을 쓰게 되면 대부분 스님상인데, 여기서는 비로자나부처님이라고 한다. 참고로 안휘성 구화산 화성사나 절강성 절에서 지장왕보살로 추앙받는 신라 김지장 스님도 오불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비로자나부처님 뒤편 방장실에는 수불 스님이 앉고, 순례자 일행은 벽을 따라서 마루에 앉는다. 입장을 알리는 죽비소리가 나자 선당 안은 단박에 침묵의 영원 속으로 빠져든다. 한 순간이 영월이라 했던가. 나는 눈감은 채 석상 경저선사의 행적을 따라나선다.

소임을 보았다. 하루는 키로 쌀을 가부는데 위산이 말했다.

“시주물을 흘려버리지 말게.”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위산은 쌀 한 톨을 땅바닥에서 주워들고는 말했다.

“너는 흘려버리지 않았지만 이젠 뭘가.”  
경저가 대답하지 못하자 위산이 다시 말했다.

“한 톨의 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게. 모든 쌀이 이 한 톨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모든 쌀이 이 한 톨에서 나온다면 이 한 톨의 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위산이 크게 웃고 방장실로 가버렸다. 그날 저녁 위산은 법석에 올라 말했다.

“대중들이여, 잘 살려라. 쌀 속에 벌레가 있구나.”

이로써 ‘쌀 속의 벌레[米里有虫]’라는 공안이 생겨난다. 경저는 대위산을 떠나 이번에는 도오에게 예를 갖춘 뒤 물었다.

“보이는 것마다 깨달음[觸目菩提]이라는데 무슨 뜻입니까?”

도오는 대답하지 않고 시자를 불러 정병에 물을 떠오라고 했다. 그런 뒤 좀 전의 상황을 잊은 듯 경저에게 물었다.

“좀 전에 내게 무얼 물었더라.”  
경저가 말을 하려 했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임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그 물건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경저의 대답에 도오는 크게 칭찬했다. 그런 뒤 도오는 경저가 깨달은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법을 전했다. 이로부터 7년 뒤 회창법당이 일어나자 경저는 번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산 양계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범거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임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그 물건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경저의 대답에 도오는 크게 칭찬했다. 그런 뒤 도오는 경저가 깨달은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법을 전했다. 이로부터 7년 뒤 회창법당이 일어나자 경저는 번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산 양계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범거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임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그 물건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경저의 대답에 도오는 크게 칭찬했다. 그런 뒤 도오는 경저가 깨달은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법을 전했다. 이로부터 7년 뒤 회창법당이 일어나자 경저는 번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산 양계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범거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임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그 물건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경저의 대답에 도오는 크게 칭찬했다. 그런 뒤 도오는 경저가 깨달은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법을 전했다. 이로부터 7년 뒤 회창법당이 일어나자 경저는 번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산 양계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범거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당에서 좌선의 정복을 누리고 있는 순례자 일행.

저는 번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산 양계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범거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임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그 물건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경저의 대답에 도오는 크게 칭찬했다. 그런 뒤 도오는 경저가 깨달은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법을 전했다. 이로부터 7년 뒤 회창법당이 일어나자 경저는 번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산 양계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범거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임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그 물건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경저의 대답에 도오는 크게 칭찬했다. 그런 뒤 도오는 경저가 깨달은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법을 전했다. 이로부터 7년 뒤 회창법당이 일어나자 경저는 번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산 양계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범거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임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그 물건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경저의 대답에 도오는 크게 칭찬했다. 그런 뒤 도오는 경저가 깨달은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법을 전했다. 이로부터 7년 뒤 회창법당이 일어나자 경저는 번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로 들어갔다.

그러나 동산 양계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범거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듣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찰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임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 한 톨의 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석상 경저는 여러 신강(현 강서성 창강현) 출신으로 13세에 남창 서산 소간에게 삭발한 후 23세에 영은 승악에게 수계 받고 율장을 공부했다. 그러나 공부에 흡족하지 않아 남쪽으로 만행하다가 대위산으로 들어갔다.

경저는 위산 회사에서 쌀을 관리하는 미두(米頭)



선종 황룡파와 양기파를 배출한 석상 초원선사의 묘탑.

## 천하의 선원으로 퍼져나간 석상칠거(石霜七去)

재상 배후가 석상사 중장을 지원하게 된 까닭은 경저선사의 범력을 흠모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배후가 석상사를 찾아왔을 때였다. 경저가 배후에게 다가가 그가 든 홀(物)을 잡자기 낚아채더니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이 황제의 손에 있을 때는 대규(大圭)라 부르고, 재상의 손에 있을 때는 홀이라 부르는데, 이 노승의 손에 있을 때는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경저는 배후가 대답을 못하자 홀로 때리는 시늉을 했다. 그것이 재상 배후를 맞이하는 최상의 대접이었다. 이후 배후의 홀은 선사의 소제가 됐다. 훗날 불인선사는 범거랑을 하여 진 소동파에게 옥대를 팔게 한 뒤, 다음과 같은 선시를 남겼던 것이다.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스님께서 배후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맑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奪得表休物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 경저는 석상사에서 30년 동안 주석하면서 이른바 석상칠거(石霜七去)를 가르쳤다. 휴거(休去), 열거(歇去), 냉주지거(冷澗地去),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 한회고목거(寒灰古木去), 고묘향로거(高廟香爐去), 일조백련거(一條白練去)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칠거는 석상 경저가 임적한 이후 대중들 사이에 다시 한 번 화두가 되었다. 경저가 휴거자를 지목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었다. 대중들은 관례상 수좌를 방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저를 시봉했던 구봉 도건(九峰道虔)이 반대했다. 구봉이 수좌에게 말했다.

“스승님께서 쉬고, 쉬며, 맑고 고요하게 하며, 한 생각이 만년이듯 하며, 재와 마른 나무같이 하며, 옛 사당의 향로같이 하며, 그리하여 한 가닥 흰 비단처럼 되라”고 하신 칠거 범문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보시겠습니까?”

“한결 같이 순일 무잡한 도리를 밝히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스승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에 수좌는 향 한 줄기가 타는 동안 좌탈하여 생사에 자유자재함을 드러내 보였다. 그래도 구봉은 수좌의 등을 두드리며 “앉아 죽고 서서 죽는 일은 능하지만 우리 스님의 도리는 꿈속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석상 경저의 선을 고목선(枯木禪)이라고 불렀다. 한때 대중이 10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중에서 800명의 대중이 고목처럼 앉아 놓지 않고 장좌불와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석상사 대중들을 고목들, 즉 고목중(枯木衆)이라 했는데, 세 명의 태자가 석상사로 출가하여 경저에게 귀의한 데다, 대중들이 장좌불와 한다는 소식을 들은 당 휘종은 크게 고무되어 사신을 통해 붉은 가사(紫衣)를 내렸으나 경저는 사양할 뿐이었다.

좌선을 끝내고 조사전으로 가보니 석상 경저는 개산조사로, 석상 초원은 중흥조사로 모시고 있다. 경저선사의 법을 받고 귀국했다는 신라승 남

공(郎空)의 흔적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다. 석상 초원은 전주(全州) 이씨(李氏) 자손으로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22살에 출가하여 분양선소(汾陽善昭, 947~1024)를 참방한 뒤 2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다고 느낀 초원이 어느 날 선소에게 “저는 스님 밑에서 2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세속의 잡다한 일들이나 하다 보니 견성케 넘 세월만 지나가버렸습니다. 스님, 저는 출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선소가 대뜸 욕을 퍼부으며 지팡이로 후렷했다.

“이 뭇난 놈이 감히 내게 불법을 배우겠다고 들어!”

초원이 비명을 지르자 선소가 입조차 틀어막아버렸다. 순간 초원은 대오하여 눈앞이 환해졌다.

“원래 임제 스님의 도는 일상생활에서 나왔구나.”

만년에 시자를 데리고 만행을 마친 초원은 석상사로 돌아왔다. 도중에 시자에게 말했다.

“내가 갑자기 품에 걸렸구나.”

시자가 초원의 입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보고는 발을 굴렀다.

“어찌겠습니까! 평생을 부처와 조사를 꾸짖고 욕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 너를 위해 바르게 하겠노라.”

초원이 입을 손으로 쓰다듬자 원래대로 돌아왔다. 석상사로 돌아온 다음해에 임적하니 나이 54세 법랍 22세였다. 초원 회상에서 두 제자 황룡 혜남(黃龍慧南, 1002~1069)과 양기 방회(楊岐方會, 992~1049)가 나와 황룡파와 양기파를 개창하니 선종은 오가칠종(五家七宗)이 되었다. 그리고 보니 산문 앞의 묘탑은 초원선사의 것인데 예전에는 그 앞으로 시냇물이 소리치며 흘렀다고 한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물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물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물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물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물 육각들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다 적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늘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의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예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유통처(조형자극건강센터, 오심건강제, 오주배계통, 지매물다양)

**불자물** [www.buljamall.com](http://www.buljamall.com)  
**불자종합쇼핑몰 BuljaMall**  
 불자용품, 사찰홍보용품, 관촉물, 기념물, 답례품  
 인쇄물전문(봉투, 전단지, 초대장 등)  
**최대 50% ~ 70% 할인**  
 소량구매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문의전화 : 070-7257-0408**